

전남 지역특화발전 우수특구 4곳 '전국 최다'

영광 보리산업
화순 백신특구
보성 녹차산업
강진 고려청자

전남지역 4개 시군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15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영광 보리산업 특구, 화순 백신특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강진 고려청자 문화특구 등 4곳이 우수특구로 선정돼 전국(9곳)에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중기청 선정, 영광 보리산업특구 대상 ... 포상금 2억원 받아

영광 보리산업특구는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포상금 2억 원을,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우수상으로 포상금 1억 원을, 보성 녹차산업특구와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는 장려상에 선정돼 포상금 각 50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영광 보리산업특구는 영광보리를 웰빙산업 대표 작물로 육성해 축산물 브랜드화 및 관광 마케팅을 통해 보리 재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구 내 보리 재배 면적과 소득은 2012년 3407ha에 31억740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3787ha에 32억6300만 원으로 늘

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전남대병원, 녹십자 등이 집적된 곳으로 연구개발·전임상·임상·의약품 제조 등 모든 과정이 원스톱 처리되는 국내 백신산업의 중심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구 내 매출액과 일자리는 2012년 2827억 원, 46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4477억 원, 178명으로 늘었다. 보성 녹차산업특구와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는 녹차 생산과 가공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정자박물관과 청자축제 등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지역브랜드 강화로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명원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특구로 지정되면 직접적 재정 지원은 없지만 규제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어 민간 자본 유치가 용이하다"며 "전남은 풍부한 지역특화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현안 국비 반영 협조를 윤장현 시장 국회서 호소

윤장현(사진) 광주 시장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현안들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 시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만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예산과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또 안민석 의원과 이인영 의원 등에게는 광·전자 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비,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태국 방콕서 폭탄 터져 ... 19명 사망

태국 방콕의 관광명소 에라완 사원 옆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 당시 폭탄이 2개 폭발했으며, 이중 하나는 오토바이에 장착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밤 폭탄이 터져 18일(현지시간) 오전 현재 19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부상한, 태국 방콕의 관광명소 에라완 사원 옆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 당시 폭탄이 2개 폭발했으며, 이중 하나는 오토바이에 장착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부채 7730억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 부실 운영

김우남 의원 지적 ... 월드마린센터 임대 가능 면적 중 60% 공실

7730억원의 빚에 허덕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호화 사옥인 '월드마린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7억원을 들여 준공한 월드마린센터가 임대 가능 면적 중 60.4%를 빈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5월 광양시 황길동에 국비 34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9층, 총 면적 1만8245㎡의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했다. 이 건물의 4층부터 10층은 항만물류 관련 민·관 업체들을 위한 임대사무실, 11층부터 17층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실, 18층은 임대오피스텔, 19층은 홍보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대사무실 중 4층과 7층을 제외한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가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숙박과 사무를 위해 7

개 실로 조성한 오피스텔도 외국인 이용 실적이 거의 없다 보니 현재 2개 실만 국내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3년도에 오피스텔을 파나마 대사관에 1년간 무상대여를 해주기도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실한 사옥 운영은 사옥종합관리용역 계약에서도 드러났다. 올해 감사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전신인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 퇴직자 A 씨가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사옥관리용역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을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초대원장 재공모

1차 응모서 적합 후보자 없어 19~28일까지 10일간 접수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가 초대 원장을 재공모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의(이사장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원장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응모한 7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심사와 검증작업을 했으나 적합한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장 선임 일정 차질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통합 연구원 출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원장추천위에서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내정한 뒤 시·도의회 공동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일부에서는 통합 연구원의 위상에 걸맞은 유력 인사 초빙이나 추천 등의 방법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공모가 원칙인 연구원 규정을 따르기로 결론지었다. 연구원은 1991년 7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1995년 6월 광주시가 출연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됐다. 2007년 시·도 연구원으로 분리됐고 지난해 7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양 시·도 상생발전의 제1호 의제로 다시 통합이 추진돼 광주·전남 연구원으로 재탄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시내·외,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매년 증가

올 278억 지원

전남도와 22개 시·군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은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 버스에 매년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다. 시외버스는 금호고속, 광신고속, 동방고속, 광우고속, 동광고속, 오동운수(2015년 기준) 등 6개사에 도비 100%, 시내·농어촌버스 50개사에는 도비 50%와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시외버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연도별로 2011년 199억원, 2012년 233억원, 2013년 266억원, 2014년 278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외버스 93억원, 시내·농어

촌버스에 185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는 시외버스 중에는 금호고속이 68억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광신고속 11억원, 동방고속 4억4600만원, 광우고속 5억5600만원, 동광고속 3억2100만원, 오동운수 1400만원 순이다. 지역별로 시내·농어촌버스 지원금은 여수가 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24억원, 목포 24억원, 나주 17억원, 고흥 10억원, 화순 8억8000만원, 광양 7억6000만원 등이다. 도와 22개 시·군은 지난해까지는 유류사용량(45%), 차량등록대수(40%), 벽지노선거리(12%), 저상버스운영(3%) 등의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배분했으나 올해는 적자노선 손실액 보전 개념을 추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세계광엑스포 주제관 문화시설로 탈바꿈

무료극장·안전체험관 운영

광주 상무시민공원 내 세계광엑스포 주제관을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세계광엑스포 주제관의 영화 상영을 확대하고, 전시 체험 콘텐츠를 새로 구축해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세계광엑스포 주제관을 시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료 극장인 '달맞이 테마극장'을 운영한다. 영화는 매월 주제를 정해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 토·일요일 오후 5시에 상영한다. 8월에는 호러·해양영화, 9월에는 인디·

단편영화, 10월에는 스포츠영화, 11월에는 음악·뮤지컬영화가 상영된다. 현재 비어있는 1층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퍼즐 등 지역에서 개발한 안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꾸며 오는 9월9일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장애인·실버·다문화·복지시설·농촌 등 문화 취약계층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해 기획, 운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은 첫회로 오는 27일 장애인 시설인 '광주 작은예수의 집'을 방문해 영화 '명랑'을 상영한다. 이후에는 상영을 원하는 시설·단체 신청을 받아 찾아가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